나루히토 일왕 즉위 "세계 평화·헌법 준수할 것"

▲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식에서 세계 평화를 천명했다.

전후에 출생한 첫 일왕으로서 즉위를 선언한 나루히토 일왕이 세계 평화와 헌법 준수를 언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자신이 일본 헌법과 '황실전범' 특례법 등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다며 "즉위를 내외에 선명(宣明, 선언해 밝힘)한다." 며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며 국민에 다가서면서 헌법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이 일왕으로 30년 이상 재위하는 동안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한다." 며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나루히토 일왕이 일본인의 행복과 더불어 세계 평화를 언급한 것은 아키히토 상왕이 재위 중에 밝힌 메시지와 상통한다. 그는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이지만 부친 등으로부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 일왕의 발언은 '오코토바'(お言葉, 말씀)로 불리며 특별하게 취급된다. 나루히토의 이날 메시지는 아베 정권의 안보 체제를 정비로 자위대가 각국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전쟁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인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상징적 권위를 지닌 일왕이 헌법을 따르겠다는 당연한 발언을 한 것도 새삼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는 올해 5월 1일 이뤄졌으나 이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을 이날 따로 열었다.

멕시코 농부들, 총 들고 아보카도 사수

'녹색 황금' 으로 불리는 아보카도를 지키기 위해 멕시코 농부들이 무장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멕시코는 전 세계 아보카도 수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1997년 멕시코 아보카도 수입을 재개한 이후 미국의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농부들이 너도나도 돈 되는 아보카도를 심으면서 아보카도는 산림 훼손과 물 부족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보카도는 멕시코 농부들에게는 효자이다. 어떤 농작물보다, 심지어 마약 재배보다도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보카도가 돈이 되자 폭력 조직과 마약 카르텔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보카도 농장이나 포장 공장을 상대로 한 약탈, 납치, 절도도 늘어났다. 한 아보카도 포장 공장은 일주일에 세 차례 무장 강도를 당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농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지만 폭력조직으로부터 아보카도를 지키기 위해 AR-15 소총 등으로 무장한 농부들도 생겼다.

아보카도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수익이 마약 카르텔에도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아보카도를 먹지 말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로 영국 식당가에서는 아보카도 메뉴가 퇴출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멕시코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인 미초아칸주에선 아보카도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의 치안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멕시코의 한 대학 교수는 "아보카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며 "실직 상태가 된 사람들이 범죄조직에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러, 터키와 '쿠르드족 민병대 철수' 합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거점 지역에서 쿠르드족 민병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 시리아 내 미군 철수로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러시아가 터키를 중재해 해결책을 마련한 형국이다. CNN은 미국이 시리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중동에서 시리아를 기반으로 러시아가 더욱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3일 '동아일보' 에 따르면 터키와 러시아는 그동안 터키가 주장해온 유프라테스강 동쪽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44km, 폭 30km에 달하는 이른바 '안전지대(완충지대)' 에서 합동 순찰을 진행하며 쿠르드족 민병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흑해 연안 휴양지 소치에서 6시간에 걸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했다.

터키는 이번 합의로 그동안 가장 큰 안보 위협 세력으로 여겨져 온 쿠르드 민병대들을 국경에서 멀리 쫓아낼 수 있게 됐다. 터키는 2011년 발생한 시리아 내전으로 자국에 온 시리아 난민 360만 명 중 100만 명 이상을 안전지대로 돌려보낸 뒤 정착시킬 방침이다.

철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안전지대(safe zone)' 가 만들어졌다!" 며 "군사 작전이 끝났고 쿠르드족도 안전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시리아에서 철수한 미군은 일시적으로 이라크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의 나자 알샤마리 국방장관은 23일 "이라크에 머물고 있는 미군이 4주 안에 이라크를 떠날 것" 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방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철군을 진행하고 있다." 며 "병력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방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라크에 재배치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 이라고 말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